東亞日報

朝刊 月曜 本紙朝夕合十面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電話代表 光化門 一九〇〇

社說

農村事業家는 나오라

手女史의 逝去를 哀悼함

一

二

三

四

東歐의 情勢變化로 佛國外交大異狀

軍縮幹部會의 再開압두고 바佛國外相의 更生策

日滿經濟提携의 重大意見交換

齋藤首相과 鄭總理四日會見

六日부터 六日間交涉

文相에 松本商相說

政友에서 島田氏入閣?

大西洋을 威壓하는 全米國艦隊

韓軍急迫로 劉軍大損害

江蘇省에 逃入

中庸의 大器인 두메르그의 爲人 (上)

佛非常時의 總理大臣

不和의

精彩에

今日까지의 略歷

烏合의

立候補

佛國의

(寫眞은 두메르그首相)

米國炭坑의 中心地인 四州에서 炭坑續續閉鎖

일리노이州에만 四萬名奪職

七時間制實施問題로 專任文相補充 來週로延期

政局安定으로 急할것없다고

日滿關係者를 蘇大使招待

北鐵交涉進展의 機運으로 三國間諒解圖謀코저

不可侵條約交涉 南京、莫府에서 進行

中國의 外交方針은 始終不變

汪氏의 重要時局談

米穀問題

審議會의 推移 悲觀은 無要?

藏相도 差別待遇反對

朝鮮米 移出能力

第一回愛國勞働祭 右翼團體가 擧行

"赤色메이데이를 粉碎"

中野〇〇隊員 下關發渡滿

夕刊後市況

改訂 コンサイス英和新辭典

新學年이 되엇읍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辭書의 選定이 第一!!

昭和九年新版

全國二千六百校指定辭書

定價二圓五十錢

—本辭典의 最大特色—

內容이 새로워

語彙가 豐富하다

解說이 明確함

發音이 正確하다

檢索이 容易하다

印刷가 鮮明하다

內容見本 進呈

新コンサイス和英辭典 石川林四郞先生編

新譯和英辭典 三省堂編輯所編

センチュリー英和辭典 三省堂編輯所編

增訂 明解英和辭典 三省堂編輯所編

圖書目錄 進呈

東京市神田區神保町一 振替東京一五五五番

大阪市西區 振替大阪八一二〇〇番

三省堂

ClibPDF - www.fastio.com

流行性腦脊髓膜炎 都市中心으로盛行

市內各病院에入院患者多數

死亡率第一많은惡疾

금번들어 경성부내에 유행성뇌척수막염이 크게 유행하야 처처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금번의 이병은 농촌(農村)보다 도회지(都會地)에 만연하다하며 위선 도회지와 계(?)별지시하다면 경성부내가 三월이래의 발병환자가 三十一명이오 대구(大邱)부내에만 七명 부산(釜山)부내에만 十四명이며 경북전체에는 二十四명, 경남에 十一명으로 그외에도 다수 발생하얏으나 아직까지 三월말일의 통계보고가 충분치못함으로 자세치않으나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야 작년보다는 二배이상 만연이라한다.

그리고 경성에서는 매우 심하야 현재 세브란스병원의 五, 大병원(?)에 각병원 입원환자가 이오 순화원(順化院)에만 一월이래 十四명이 수용되어 十一명이 사망하고 一명만이 전치되었다는 무서운병이라고 한다.

集會場所에 아이데리고가지말라

함소와 마스크가 필요하다

小兒科長 李先根氏談

이에대하야 경성부립병원 소아과장 이선근(李先根)씨의 말을 들으면 다음과같다.

이병은 二월로 五월까지가 제一많이 유행되는 병으로서 사망률 이제一심한 무서운병이다. 이병에 대한 예방이 별로 없는바 「와이스」는 「바우」가 이병균이라 피도하는데 제一주의할것은 어린애게도 보균자가 잇슴으로 사람많이모인 곳(극장, 음악회장같은)에 어린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것이 좋으며 살균제를 함한 함수약으로 양치질을 자주시키는것이 좋다.

이병균이 어디로 들어가는것인지 아직도 밝히 발명되지 않엇으나 제一 주의할것은 편도선이므로 이에 함소와 마스크가 필요하다. 예년에도 잇엇지만 금년이 제一 심한것만은 사실이므로 이에 특히 주의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말한다.

三處火災

三일 하로동안에 시내 동대문서 관내에서는 세곳에서나 화재소동이 잇엇다.

◇시외 한지면 마장리(馬場里) 四九四번지 이근봉(李根奉)의 집에서는 오후 四시 二十분경에 원인불명의 불이 이러나 一동 一호를 반소하고 동五十분경에 진화되엇다는데 손해는 약 五十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 연돌의 불충분으로 이러나게 되엇다고 한다.

◇시외 숭인면 안암리(安岩里) 五十五번지 권홍업(權洪業)의 집에서 오후 十二시반경에 불이 이러나 일시소동이 잇엇으나 동一시二十분경에 진화되엇다는데 손해는 약 十五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 목하 조사중이라 한다.

◇시외 뚝도면 광장리(廣壯里) 五十八번지 유재근(兪載根)의 집에서 오후 二시十五분경에 불이 이러낫엇다 동三十분경에 진화되엇다는데 손해는 一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 부엌에 싸놓은나무에 불이 붙어 발화하게 된것이라고한다.

死者千九百 重傷二千二百名

四日現在函館의被害

【함관전화】 함관경찰서조사에 의하면 四일 오전十一시 현재의 함관시대화의 피해는 아래와 같다.

▲전소지가 二十二개정 一부소실 十七개소 합계 三十九개정

▲가구수 二만二천六백 六十二

▲인구 十만一천九백 七十九

▲사자 一천九백十六명중 유족에게 인도한자 一천二백七十七 함관시 경찰에 인도한자 백七十 인수인없는사자 四백六十九

▲중상자 二천二백十八명 내사망 七十

▲손해액 一억二천六백 九十만여원

雲山에도尺雪

【운산】 평북 운산(雲山)과 영변(寧邊)지방에는 한식을 一주일간 앞두고 지난三十一일오후부터 시작하야 나리는눈은 三十一일오후까지 계속하야 나리는눈이라는데 벌서 一척이상이나되어 앞으로 몇일 갈것이며 일반농가에서는 나무와 비료운반등 우려중이라 한다.

飮毒한女子

가정불화로

四일오전 十二시경에 부내서린동(瑞麟洞) 一백六十六번지 박영자(朴英子)(二二)는 자살코저 양잿물을 마시엇다. 그의 신음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한성의원(漢城醫院)에서 응급치료를 하얏슴으로 생명에는 관계가없을 모양이라는데 그의 자살코저한 원인은 가정불화와 생활난인듯 하다고한다.

恩山渡船場의慘事

被害者姓名判明

十五名行方依然不明

판명시체는 대개 어른이오 아이는 一명

【부여지국전보】 三일오후四시 二十분경에 충남 부여군 부여면 쌍북리(雙北里) 扶餘面 扶蘇里 부산(浮山) 三선창에서 파선된 배의 승객은 五十명으로 그중에서 시체로 발견된것이 二十三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판명된 시체는 부여면 쌍북리(雙北里) 이용준(李容俊) 구교리(舊校里) 우서기(禹瑞基) 규암면 호암리(虎岩里) 김주호(金周鎬) 윤기병(尹基炳) 동면오수리(同面午水里) 고동선(高東善) 김동헌(金東憲) 동면 합정리(合井里) 임덕보(林德甫) 유기보(柳基寶) 오서산(吳曙山) 박상기(朴相基) 동면 김한기(金漢基) 임덕주(林德柱) 동면신리(新里) 박상돈(朴相敦) 김성학(金成鶴) 김방돈(金邦敦) 이경식(李慶植) 이범로(李範魯) 은산면(恩山面) 최동만(崔東萬) 김수덕(金秀德) 김유재(金裕宰) 논산면 화지정(論山面花枝町) 박성옥(朴成玉)이다.

그리고 아즉 이름모를 아이 一명 어른 一명이라한다.

今日이晴明

이소! 이리가

발가리에바뿐농부 오이씨뿌리는안악

우리가의 오늘은 四분. 지난 소설(小雪)때 묘은 무아 봄빛이어뻐나 자때를 감추었든 무지개가 또 양지짝 개나리는핑 다시 나타나는절후다. 그래 웃는다. 외우 갈음의 예를 않은 곳은 비가 주는 맑고밝다— 나리고 날리는 이날이때가 멎 오늘이 청명(淸明) 때는오후 八시四十 번이나 다행의 때 一時 이라고 경성측후소에서는 말을한다마는 어떨는지?

무덤지가 화하야 종달새가 뜬다는 옛말이 잇다. 감자, 산 오이의 씨를 뿌린다. 가래, 괭이, 곰베를 멘 농부들이 논두렁을 따라 이저에 나선다. 목동(牧童)이 요지행화촌(遙指杏花村)이라 날리도 새로운 농부가 가 봄을 재촉한다. 봄 농사에 의 출발이다.

(사진은 밭갈이하는농부)

봄파酒客!

유치장신세세건

봄파 주정군 이는 매지못할일이 가지고잇다. 三일 하로동안에 시내본정서 관내에는 주정군의행패가 세곳에서나 발생하엿엇다.

◇…시내 태평통二정목 五十一번지의 이진원(李鎭元)(三二)은 술이대취하야 오후十二시경에 시내 장곡천정 조선공론사(朝鮮公論社)앞 큰길에서 九十三번지 김치선(金致善)외 허다한 행인에게 행패하는것을 소관태평통파출소원이 발견하야 만류하는것도 듣지않고 도로혀 순사에게폭행을 가하다가 박권되어서 유치장에 유치되엇다고한다.

◇…시내 황금정三정목 一백五十六번지 시취소태랑(矢吹小太郞)은 오후八시五十五분경에 술이대취하야 시내에서도 가장번화한 본정통에서 지내가는 보행서원에게 조소를하다가 본정서유치장에유치되엇다고한다.

◇…시내 황금정五정목 二백四十七번지 어물상 강명안(姜明安)은 오후 四시경에시내 초음정 三번지 상업식당(商業食堂)에서 술을 잔뜩마시고 동식당에서 폭행을 가하고잇는것을 황금정四정목파출소 순사가발견하고 만류코저하엿든바 도로혀그순사에게 폭행을 가하엿슴으로 본정서 유치장에유치되엇다고한다.

鬱陵島民救護金

四日本社接收分

一金二圓也 任實郡雲岩面鶴岩里 進興靑年會員 一同

一金六圓五十九錢也 咸興郡興南面 里敎會靑年勉勵會

雇女되어高飛

금四일오후二시경에 부외전농리(典農里) 一백二十八번지 김경숙(金慶淑)(二ㅇ)이라는여자는 자기 사는 동리 박성삼(朴成三)의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다가 [illegible] 가지고 도주하엿다고 동대문서에 [illegible]

酒店에서惹鬧

四월一일 오후十시경에 시내황금정二정목 七十七번지 김봉이(金奉伊)의 주점에서 이영주(李永柱)와 한 주만풍(朱萬豊)외 二명이 술을 많이마시고 동주점에서 야료를 하엿다고 [illegible]

에로를防止

風紀取締策으로

外出女給의行動監視

최근 시내 각 카페와 바의 영업자 十六명을 비롯하야 각 카페의 여급(女給) 二백여명을 동서에 호치하야 풍기취체에 대한 일반적 지시와 주의를 주엇다는것이다.

그의 요점은 손님들에 대한 써비스와 외출여급의 행동 영업시간의 정확등으로 만일 이에 위반하는 영업주나 또는 여급들에게는 단호히 처벌을 하리라한다.

이에 제一착으로 동서보안계에서는 四일 오후二시부터 관내카페의 여급들을 동서 보안계에 불러 외출을 할때 어떤 손님과 외출하는것을 [illegible]

매는 청하추광이 바야흐로 무르녹는 봄— 나날이 늘어 끝간곳에 즐비한 북촌 종로거리에서는 그야말로 날우도 육감적 「에로」를 발산하고잇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든지 치안경찰의 풍기상으로보아서도 묵과할수가 없다하야 소관종로서에서는 단연 이의 파행의 부업을 내리게되엇다.

百十五名採用

鐵道局의새사람

취직난시대의 난관을 돌파하고 엄격한 여러차례의 전형을 거치어 드디어 四월一일부터 보게된 철도국의 금춘 새 채용자 총수는 一백十五명이며 이들은 전부 한번은 서무과 근무로 명하야 四부로 나누어 제四부 다음과 같다한다.

▲제一부 中等校卒業한 事務員 五十名

▲제二부 同上技術員 三十名

▲제三부 專門學校以上 卒業한 事務員 十八名

▲제四부 同上의技術員十七名

鍾路管內種痘

종로서에서는 오는十一일부터 十四일까지 四일간관내에서춘계종두(種痘)를 시행하리라는데 그일할과 장소는 다음과같다한다.

十一日▲臥龍洞▲鍾路二丁目▲寬勳洞。十二日▲鍾路三丁目▲安國洞▲苑南洞。十三日▲昭格洞▲通義洞▲內資洞。十四日▲清雲洞▲玉仁洞▲光化門通▲西大門町

函館災民救濟義捐

四日本社接受分

一金一圓也 平壤府新陽里八○ 林永福

累計金 四百八十五圓五十錢

弑父犯? 李洙倬

生死岐路에彷徨

증인공술과 평소방탕을 주로

檢事의峻嚴한論告

[illegible]

재 이건호가 죽을때에 임종은 누가 보앗는가.

중 이수탁 박소식은 수탁이 어째서 아니오는냐고 그런말을 못하엿는가.

중 그런말은 못들엇습니다.

재 수탁이가 오지안햇는가.

중 수탁이 온지 一시간후에 죽엇습니다.

재 수탁이는 그때에 부친에게 무엇이라든가 약을쓰라든가 그런말을 하엿든가.

중 수탁은 변명하고 의사한사람 데리고와서 주사를 한것갓습니다.

재 비납심은 어떠한사람인가.

중 은행원이라고하야 그러케알엇습니다.

재 비납심과 이건호는 잘아는사이인가.

중 이건호는 원래 머리까는사람은 싫어함으로 친할리가 없엇습니다.

재 이건호가 죽은후 피부가 검고 가스파백는 검엇이 비서지게 되엇다는데 어떠하엿든가.

중 죽은때부터 검게되엇는데 판에얼때에는 실로 볼수없엇소.

재 그시체에서 냄새가나서 향수료 씨스러고 하엿다지.

중 향수로 씨스러고 하엿으나결이 버서저서 향수없엇소.

재 그후 입관식으로부터 증인은 무스말을 드럿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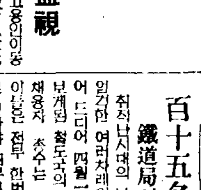
중 수탁이가 지어온약을 먹고나서 고민하다가 죽엇다는말을들엇소. 인하엿는지 혹은 입관식이 가깝게하엿는지 그러한 말이잇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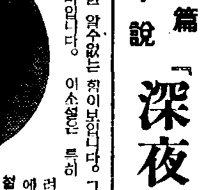
재 수탁이는 아무말도 없엇든가. 수탁이보고 부친에게 무스약을 가져가야 하엿다는지 ...

[illegible]

長篇小說豫告

長篇小說 「深夜의太陽」 八峰 金基鎭 作 靑田 李象範 畫





紹介의말슴= 만천하 독자의 심금을 울리고도 남음이잇는 장혁주(張赫宙)씨의 「[illegible]」가 끝을 맺어지게되는 의외로 작가에게 오라지 않어서 끝나게되엇습니다.

그뒤를 이어서 새로운 연재소설로 나타날 소설은 팔봉 김기진(金基鎭)씨의 력작 「심야의 태양」(深夜의太陽)입니다.

이제 독자앞에 작가를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팔봉은 평론가(評論家)로 그의 명석한 분석과 조리는 우리문단에 이름이 높습니다.

또 평론가로서만의 팔봉이 아니라 일즉이 一九二五년에장편소설 약혼(約婚)을 발표하엿고 二九년에도 해조음(海潮音)과 청년 김옥균(靑年金玉均) 을 발표하야 만천하독자의 애독을 받엇습니다. 이제 四, 五년의 침묵—— 그침묵은 비약의 준비——은 마침내 염원의 소설계에 큰 공헌을 주엇섯습니다.

이제 四, 五년의 침묵후에 나오게 되엇으니 그어린생명을 이룹지어 봄과 함께 같이 그가슴을 박차고 나오게되엇으니 그어린생명을 이룹지어 「심야의태양」이라햇습니다. 그이름이 보여주는것과 같이 섬은 깜침속에서 새어이 트는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作者의말슴= 우리는 조선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간날의 우리의 선조(先祖)들의 자취를 뚜렷이 다시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말은 막연한 말입니다만 우리는 그 불명한 말에 분명한 우리의 것을 보여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의 생활속에 독자들은 진에서 그들의 생활속에 드러가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새로운생활의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설과 같이 청전 이상범(靑田李象範)씨의 사회는 금상첨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진은 右 김기진씨, 左 리상범씨)

못한 알수없는 힘이보입니다. 그림은 목자의 신앙(信仰)과 더부러 울고웃는 농부가 벌써 봄을 그리는것입니다. 이소설은 특히 최근조선사람의 배경으로 그속에서 움죽이는 인생들을 그려지나간 우리 선조들의 생활속에서 조선사람의 자취가 얼마나 컷든가를 보이려는 것입니다. 지나간 조선의 자태가 얼마나 뛰어낫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실것입니다.

四月廿八日부터 本紙朝刊三面에連載

滿洲國의極東올림픽參加

如何한名義로라도反對

中國의態度、脫退도不辭

【聯合上海二日發】 滿洲國參加問題에關한 中國의 態度는 依然强硬하야 조금도讓步하지 않을뿐아니라 國際會議開催直前에는 一層硬化하야것다。卽目下體育協進會長 王正廷氏는 不在이므로 確定的態度를 表明하지는 않엇으나 最近南京政府敎育部社會敎育司長張炯氏가「個人資格으로 參加하는境遇에는 調停餘地가잇다」고 聲明한 事實을 否定하고「滿洲國의 參加는 如何한 名義로라도 絶對로 認定하지않는다。萬一 滿洲國選手가 出場하는等事가잇으면 中國은 斷然極東大會로부터 脫退할터이다」라고 强硬히말하고잇다。또 이에對하야 日本體育協會代表山本氏는 말하되

第一日의 會議에서 滿洲國參加問題에對하야는 中國代表도 이미質疑하고잇을터이므로 크게 議論은 없을터이나 問題는 第二日의會議에서 滿洲國 參加問題도 多數決로 採決할것인가가 論議의中心이다。多數決主義로 取하는境遇에 中國代表가 會議出席을 拒否한다든가 또滿洲國參加가 採決되는境遇 極東大會로부터 脫退하는 念慮가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自己는 스포—츠맨의 立場으로보아서 中國代表의 自重할 생각이다。

三國圓卓會議

九日上海에서開催

【聯合上海二日發】 滿洲國參加問題에 關한日本、中國、比律賓三國圓卓會議는 드디어 四月九日上海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다 比律賓代表 바이달(?)博士는 八日上海到着할터이며 議事豫定은 다음과같다。

【第一日九日】

一、一般選手權(제너랄참피온쉽) 問題)

一、佛領東印度、佛領인도中國及印度參加權問題

一、女子庭球選手權問題

【第二日十日】

一、滿洲國參加問題

極東參加를目標로 滿洲選手猛練習

【聯合大連三日發】 極東올림픽大會參加를 目標로 滿洲國體育協會陸上部選手于希渭 主將以下 十四名은 過般來 興需督指導下에大連그라운드에서 合宿猛練習을 行하고잇는데 滿洲體育協會 滿洲陸上競技聯盟에서는 滿洲國體協 파遣選的結果로 三月卅일에 앞서러 日滿交驩陸上競技大會를 開催할 氣勢를 보이고 잇다。

三角籠球團定總

三角籠球團에서는 三月 그十一日 安國洞一六一番地 同會事務所에서 總會를열고 團員三名의除名處分이잇엇고 幹部를 다음과같이 改選하엿다。

監督李光日△委員長洪淳烙△總務部權爽東△體育部安基燦△社交部李文鎬、崔華燮、裵鋪東△出版部洪淳烙

第一回職業拳鬪大會開催

鮮滿拳鬪會主催로 第一回 全鮮 프로페슈날拳鬪選手權大會 兼마라나오歡迎戰을 四月二十一日午後一時 京城運動場庭球場에서 行할터이라고하는데 比人 프랑크마리나오는 多賀安郎과對戰하야 三戰二勝一敗의 戰績을 가지고잇는데 選手權大會 當日마리나오對多賀의 歡迎戰(八回戰)을 行할터인데 詳細한것은 追後發表할터이라고한다。

高麗의木曜會復活

高麗陸上競技會에서는이번五日의木曜日부터 每週木曜日밤에 모이던 木曜討議研究會를 復活할터이라고한다。

享榮商5德山商3

【十九回의延長戰에】

【電通大阪電話】 全國選拔中等野球第二回戰 享榮商業對 德山商業試合은二日午前十時부터開始、補回十九回戰及 五對三으로 享榮商業勝

小倉工5A岐阜商4

【電通大阪三日發】 全日本 選拔中等學校野球 岐阜商業對 小倉工業戰은 三日 午前十時부터 岐阜先攻으로 開始、結局 五A對四小倉勝

浪速商4中京商3

【電通大阪二日發】 大每主催選拔野球浪速商業對中京商業戰은四對三으로浪速商業勝

浪速商3神戶一中1

【電通大阪三日發】 浪速商業對神戶一中戰은 三對一 浪速商業勝

明石中2京都商1

【電通大阪三日發】 全日本 選拔中等學校野球 明石中學對 京都商業戰은 結局二對一로 明石中學勝

東邦商6A明石中3

【電通大阪電話】 中等野球準決勝 明石中學對東邦商業戰은 四日午前十時부터擧行、六A對三으로 東邦商業勝

運動界動靜

▲金永善氏 (朝鮮女子 氷上競技選手權保持者) 이번에京城崇貞學校에入學

陰四月五日(木曜日) 陰二月廿二日(丙子)

日出前六、一四 日入後六、五八

月出前○、○○ 月入後九、一二

【滿潮】

仁川 前八、二五 後八、二五

釜山 前二、三○ 後二、一五

鎭南浦 前二、四五 後三、三五

龍角散

拾錢均一의各種서람들

全國各藥店에있음

藤井得三郞商店

甲申政變 그影響

獨立黨의沒落과그影響

續朝鮮最近世史(23) (卅一) 李瑄根

第二項 政變後의日、清、韓交涉

三日內閣의 瓦解는 참으로獨立黨의沒落에만 그치지않엇고 壬午軍亂以來 겨우 勢力을 挽回케 되엇든 日本勢力에도 重大한 影響을끼치게하엿으니 竹添以下 日本公使館員一同이 狼狽脫走케될當時 京城市內의日本居留民들은 人命과 財産上 損失을當함이 적지 않엇다. 이제 淸兵과 群衆의손에 京城附近에서 慘殺當한 日本居留民及 私費生等의 數를 살펴보면

南大門內에서 六名
泥峴에서 九名
明洞에서 一名
水標橋에서 一名
鍾路에서 三名
鍾閣에서 五名
桂洞에서 一名
安國洞에서 一名
未詳 二名

第二十九名의 商民외과 步兵大尉 磯林眞三以下 參謀本部語學生二名, 步兵曹長一名, 一等卒二名 私費生徒一名, 其他雜丁과 人夫...

[illegible] 以上 犧牲者中에서 가장 問題된것은 公使館附武官 磯林大尉事件이니 그는 參謀本部 地方旅行次로 京城을떠낫다가 十二月五日 仁川地方에서 京城으로 歸還하는途中 京城附近에 이르자 激昂한 群衆에게 包圍되어 亂打之下에 虐殺을 當하고 말엇다. (鈴木省吾編「金氏實行傳」四二頁—四八頁參照)

日、淸兩國은 正面衝突은 事實만으로도 責任의所在를論하지 않을 수 없는 重大問題이엇든 이러한 多數한 犧牲者를 내인바에 이러케 重大한 問題로서의 交涉이 아니 될 수 없는 지라 日本政府의 輿論은 依然 沸騰케되어 淸國에 對하여는 此際 實力으로써 겨루어보자는 强硬論까지 傳播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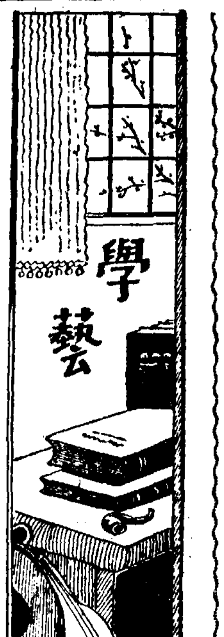
그리하야 政府에서도 問題를 重大視하야 外務卿 井上馨을 全權大使에 任命하고 副使로 陸軍中將 高島鞆之助, 海軍少將 樺山資紀等을 隨員으로 十二月二十二日 東京發, 卽日 橫濱에서 汽船薩摩丸에 搭乘하야 下關을거처 朝鮮으로 向하게 되엇다.

그런데 이들의 一行이 仁川에 到着하기까지에 日淸兩國間에 使節問題로 數次의 交涉이 잇엇으니 이보다 압서 駐日淸國公使 黎庶昌은 本國政府의 訓令에 依하야 淸國政府에서 代表者를 朝鮮에 派遣하겟다 하엿으니 日本政府로도 代表者를 派遣하야 朝鮮서 彼此會商하자는 提議를 하엿다. 이에 日本政府로는 淸國政府로서 全權代表를 派遣하겟다는 點에 留意하야 同意를 하엿섯다. 그러나 다시 얼마 아니하야 淸國政府는 駐滿日本公使...

[illegible] 公使館付武官... 護衛兵을 附하야... 一行이 下關에 到着하엿슬때... 外務大輔吉田淸成으로부터「淸國使節의 兵五百名을 引率하고 朝鮮으로 向하엿다」는 天津日本領事의 報告를 傳하는同時 其他의 主要事項이 結局日本帝國大使 一行도 二大隊의 護衛兵을 引率하고 仁川으로 向하게 되엇다. (明治文化全集第六卷所載 井上特派全權大使復命書參照)

이와같이 하야 井上의 一行이 仁川에 到着하기는 明治十七年十二月三十日이엇다. 一行은 京城에 들어오고 井上公使는 一小隊의 護衛兵을 引率하고 京城에 들어가 朝鮮政府와 談判을 開始하게 되엇다.

使一行은 四日 仁川에 逗留하며 情勢를 살피다가 翌正月三日(陽曆)入京케되엇다.



學藝

流行歌謠曲의 製作問題 【下】

吳河潤

韓이 現下의 情勢로써 보건대 作曲家의 詩에 對한 理解는 切實히 要求해 마지않는 것이다. 作曲家諸氏의 國民 樂作하는 歌詞의 實例에 비치어 肯定할 바 아니나 明白히 說明할수 잇는 일이다. 詩에 對해 理解만 잇다면 그 完璧을 期할수 잇다. [illegible]

詩人 的 素質이 많은가를 보는 同時에 그들의 作曲하는 다른 詩人들의 노래가 또 한 詞와 曲을 調和할 보기 어렵다. 이러한 作曲家의 作曲 日本이나 歐米作曲家의 作曲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詩를 理解하는가 아니

그러면 現在 一二三會社의 試驗的 朝鮮古歌謠에 大膽한 [illegible]

（이하 [illegible]）

短篇 쌀라리맨 （三）

쩌임쓰·쪼이쓰 作 無涯 譯

그는 아래층 사무실로 돌아와다 시 새상을 마주대하고 앉엇다. 그는 [illegible] 이따금 그 편지를 [illegible]

[illegible]

文壇消息

『魔都의香불』完結 啓明社로부터出版

力仁根氏의 長篇小說「魔都의香불」은 일즉이 本紙에 連載되어 오다가 스토리의 展開가 興味의 絶頂에 達하매에 不得已한 事情으로 掲載를 中止하엿든바 이번에 全部 完結하야 市內 光化門通 啓明社로부터 五百餘頁의 單行本으로 發行하기로 되엇다한다.

漫文·漫畫 春光點描 (5)

崔永秀

싸어지는 바다가 물결 가지에 매어 달린 꽃봉이같이 本町거리에 매어달린 서울의 봄을 자랑하야 멀리 東海岸으로 봄빛을 찾아서 本社의 몸이 되엇다.

東萊溫泉의 玉流灣一瞬에지나 三防驛의 假合場으로 보내고 安邊에서 車를가르다 지금은 새빌어 鶴巢—東萊— 東海岸을 달음질하다.

海金剛에 車를 대려 叢石亭 石柱위에 발을 앉히고 멀리 水平의 히미한 나롯을 無限하게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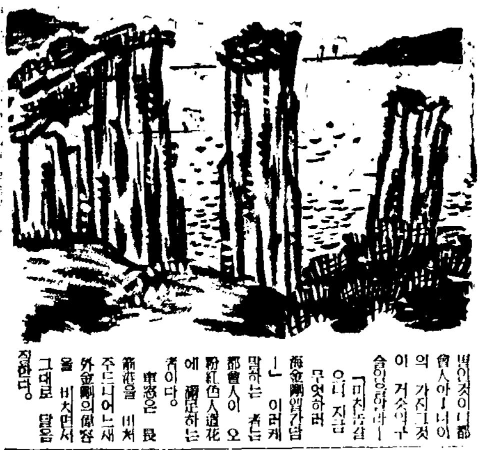
이곳에는 纖細한 女人의 붉은입술도 파라스킈도 없다. 오직 그리고 상원봉도 없다. 오직 바람 자고 꽃 피는 바닷가으로

갈매기의 平和스런 날개만이 춤주는 꽃에 漁父의 뱃노래가 들리며 보일뿐이다.

봄은 결코 山과 들로만 오는것 이아니오 또 女人의 스카—트에만 찾어오는것이 아닌 것이다. 또 그런 한 봄이 眞正한 봄이 아닌것도 알엇다.

바다로— 봄은 바다로인 저오는것이오 또 바다로오는그 봄이 眞正한 봄이것을 뛰다라는것이다.

水晶柱가 十五度의 氣溫을 보이는 서울의 봄보다는 퍽저 차되 오히려 찬기운에 봄이잇엇다. 눈이 아직도 이곳저곳에 우뚝이 쌓여잇다 그러나 녹아흐르는



소리 그것이 봄소리인것이며 눈 위에 퍼붓이는 햇볕, 그것이 봄인것이다 都會人아! 너의 의 가지고 잇는 이 거짓의 봄은 어데 잇는 「미친것이다」! 이러케 말하는 者는 都會人이 오 都紅色人造花에 滿足하는 者이다.

東海는 長箭港을 비쳐 주는니 어느새 外金剛의 雄姿를 비치면서 그대로 담을 질한다.

專門程度各學校 入學試驗問題

其六·普成專門學校（下）

數學

（代數）

(1) 今ヨリn年前ノ米價ヲ,今ヨリ4年前ニ比較スルト,一圓ニ付イテハ3升安ク,一升ニ付テハ30錢安カリシト云フ。今日ヨリn年前ノ米價ハ1升ニ付キ何錢ナリシカ。

(2) $\left(\frac{x+a}{x-a}\right)^2+\left(\frac{x-a}{x+a}\right)^2-2$ ─── ヲ簡單ニセヨ
$\left(\frac{x+a}{x-a}\right)^2-\left(\frac{x-a}{x+a}\right)^2$

（幾何）

(1) 圓ニ內接スル四邊形ノ對角線ガ互ニ垂直ナルトキハ其ノ交點ヨリ一邊ヘ引ケル垂線ノ延長ハ之ニ對スル邊ヲ二等分ス。

(2) 二ノツ等辺三角形ABC,DBCガ底ノ兩側ニアルトキハADハBCノ爲メニ二等分セラル。

（以上一時間三十分）

商業算術

(1) 1,000圓ノ負債アリ: 今之ヲ返却スルニ當リ年八分ノ利息ヲ附シ10個年年賦ト爲サントセバ每年何程ヲ支拂フベキカ。

(2) 5分利付ノ帝國公債ヲ買入レテ6分利ニ廻サンニハ何程ニテ買入ルベキカ

(3) 次ノ外國貨幣ヲ換算セヨ(錢未滿四捨五入)

(a)f215,12s,8d (a)210 $\frac{13}{16}$

(b) 2,530,80 (a)49 $\frac{3}{8}$

(C) Fr8,366,75(a)2,97 $\frac{1}{2}$

白衣考 （四）

劉昌宣

[illegible] 이었을 써 나가 그러지 않으면 사적을 하고!

以上의 史實에서 우리는 契丹民族이 얼마나 尙白思想이 濃厚하엿든가를 짐작할수있는 것이다. 白衣와의 關聯이 어떠하며 그 思想이 어떤 것이엇으며 그 思想의 本質이 무엇이엇든가를 알아보건대

元史卷一、本紀에

「太祖十世祖 勃端察兒 母 阿倫果 寡夫로 居하다가 夜夢 白光自天窓入...」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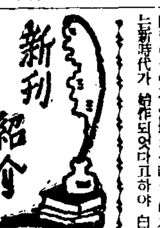
나의雅號·나의異名

「樹州」의 由來 （下）

卞榮魯

내가 나의 雅號를 樹州라한 理由를 몇들자면 아래와같다—

一、雅이 不俗하기때문이다
二、남이 짓지 않앗한 別意味가 없기 때문이다
三、依例이 雅에 나오는 글자가 없기 때문이다
四、나무같이 新鮮하고、꿋꿋이 넓이가 잇고 싶은때문이다
五、마즈막 理由는 樹州란 내가 出生치 않은 故鄕(先祖이 잇든곳) 인 富平(現富川)의 古號이기때문이다



新刊紹介

▲哲學 第二輯 ... 發行所 東京市 ...
▲新東亞 四月號 ...
▲朝鮮地方行政 四月號 ...
▲廣辭林 ...
▲文敎の朝鮮 四月號 ...
▲事實通報 四月號 ...
▲化學工藝 四月號 ...
▲朝鮮藥種商受驗講義錄 第一輯 ...
▲宗教時報 四月號 ...
▲農民旬報 ...

[illegible]

라디오 今日프로 木曜日 JODK

晝間部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京城府廳發表
▼零時四十分 뉴스
▼二時 至六時 全國選拔中等學校野球大會試合實況 日曜甲子園野球場으로부터中繼—
▼午後零時五分 短歌와雜歌(一) ... 林明月 李日善 金泰業

夜間部

▼四時 뉴스 職業紹介事項
▼六時 （東）經濟市況 東京라디오·오—케스트라 指揮 小松平五郞
▼六時三十五分 라디오學校 新學期와試驗準備(二)
▼七時 뉴스 天氣豫報
▼七時三十分 講座 ...
▼八時 피아노獨奏 ...
▼八時三十分 時調와俗謠 ...
▼九時 ...

第一放送

▼九時三十分 （東）時報 뉴스、氣象通報、翌日프로그람發表

明日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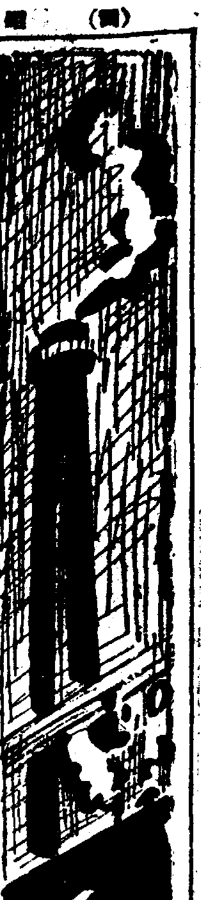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料理法、日用品時勢▲正午 時報、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零時五分 ...▲零時四十分 뉴—스▲自二時 至六時 全國選拔中等學校野球大會試合實況(日語) —甲子園野球場으로부터中繼— ▲四時 뉴—스、職業紹介事項▲六時 ...

무지개 (五) (181)

張赫宙 作 李象範 畫

[illegible]

四月號 女子教育特輯 新家庭 發行所 新東亞社



漫畫

特殊鑛을併産하면 朝鮮米産額을凌駕

世界各國서도金保有에汲汲

黃金狂時代의昨今 (完)

現在世界各國은 金保有에 汲汲하야 米國은 世界의 金貨의 百十億弗 …

露西亞石油 朝鮮內再進出

販賣會社(株式)創立

米穀朝鮮의 數字的檢討

農業者數와 檢查及輸移出

그의二十三年間消長 (一)

相昭七年末農業者數

民族別 / 農民世帶數 / 人口 / 全世帶數 / 人口

日本內地人 / 朝鮮人 / 外國人 / 計

馬山港의移出入

永興産組復興對策

朝鮮織物增實

◇……產業世界카메라巡禮……【十二】……◇

北米加奈陀의牧場——北米加奈陀의 西部는牧畜業도 盛하다 「알바—타」가 더욱 盛하다 이사진은「알바—타」州의 「에드몬드」附近의 牧牛區一部다 넓은牧場에 悠悠히 놀고잇는 牛群들은 보는사람으로하야금 大陸的으로 雄大한 感懷를 도두는것이 愉快한것이다

昭和七年自作小作別耕作面積

◇朝鮮米의輸移出◇

累年玄米檢查成績表

累計白米檢查成績表

累年米貿易表

鎭南浦港貿易

九千三十八萬圓

產業俱樂部

新東亞 四月

世界危機特輯號

定價 卅錢

發行所 京城光化門通一三九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 電話(光)一九〇〇

歐洲政局의危機切迫 高永煥

- 日英經濟戰
- 歐洲金本位를 둘러싼 危機 伯莫
- 國際聯盟改造劇 達成
- 國際聯盟의危機 申瑩澈
- 世界最大列國의潛水艦……NY生
- 爲替戰과極東問題……金明植
- 戰亂天津의春夜片談……丁來東
- 世界大戰豫言은맛는가?……梁在洙
- 歐洲各國의防空施設
- 世界市場商品戰……金用達
- 世界經濟는小康한가? 潛在的反動의 危機、石油戰、綿業界의危機、綿業界의波瀾
- 三六年의科學戰……梁斗植

危機直面한世界

世界縮圖(三頁) 重要時事解題

危機畫報

異國의봄追憶

中國問題

- 紅軍의現勢와그分布……申彥俊
- 中國의列强宣傳機構……鄭祥鱗
- 中國時局八大解決策……胡漢民
- 土地制度의史的考察……吳南善

中國文豪……會見記

朝鮮小作問題總觀 金正實

- 人類文化史上의發明及發見……李栢圭
- 人間의壽命에關한一考察……李健榮
- 冬眠動物의첨봄맛이打鈴……XYZ
- 作家와批評家와文壇……李莿林

懸賞文藝當選作品 第二回發表

小說家 되는妙方 모리스、데코부라

戱曲 인데리와빈대떡……蔡萬植

短篇 賣春婦流轉記……崔載瑞

長篇小說 血淚錄 (第六回) 無名生

經濟講座 充統制經濟의基本概念 第一回

農家蘇生의實績
多角的營農이奏効
◇每戶에牛、豚이平均一頭씩
汶山의五個年計劃適中

【문산】농촌의 경제적부흥을 도모하랴면에는 다각적영농과 농사개량을 목표이어니와 유축농업으로 보 농가一호에 축우(畜牛)와돈 각각一두와 양계二十마리의 평균은 가지어야 농가의수지가 능률도 발휘하겟다는바 농사를 지을도 편집 양계되면 부수입의증진이 된다하야 파주농회에서는 四년전이소화 六년부터 五개년계획으로 장려하여 이래 금년에는 八분까지 실행에 이르러 현재 축우와 양돈은 매호 평 一두씩에 이르며 양계는 명녀까지면 매호당 二十수에 이르게 된다는데 현재 전군의 양계수는 四만二천七백수로 매호당六수이고 산란고 七十一만三천五백여개로 四만五천여원의 화수입을보게 양계의 이익에서 소득되는 부수입이 매호당 二十마리의 양계를 급속히 보급하기 위하야 작년부터 전기부화기를 설치하고 二十일마다 一차 마리의병아리를 부화해내는데 금춘에 까지 병아리는 四만五천마리라하므로 불원간 양계보급이 부리라한다.

꼭게에 중대한 영향이 잇으리라 하야 一반의비란이 자자하다고한다.

未安한일이요
農會長 方孝信氏談

너무나 미안한일입니다. 나도 예시 장사를하는사람이니까 다소라도 이익을 보아야만되지 안켓슴니까 그러한생각에서 매석에 불과얼마안되는것이 너무나 과도에 지내친일이되고보니 무엇이라고 변명할여지가 업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그사람들 속여먹자는 계획적악의는 아님니다」운운

元、楚線工事
今年內繼續

【영흥】원초선(元楚線)도로공사는 작년十월까지 제一구공사를 마치엇으나 총독부의 예산관계로 금년은 다시 중지하지않을까 염녀될 형편에 잇엇는데 동도로공사 속공기성회 위원들이 다시 활동을 계속하야 수차당국에 진정한결과 이에 도당국에서는 해도로의중요성을 짐작하고 인정하야 금년도만은 형편에 의하야 구궁 공사비중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만은 계속하기로 확정되엇는데 그 예산액이 三만원에 불과하므로 一방 지방주민의 출역을 시켜서라도 금년내로 서흥면 성리(西興面城里)까지는 완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月井驛火災
隣家에서同情

【영흥】지난三十日 오후四시경 영흥군 월정역(月井驛)전의 황순수(黃俊秀)씨가에 실화하야 동가는 전소되엇다 황씨는 七십고령으로 구차한생활을하는중에도 수원전에 사랑하든 아들의 내외를잃고 쓰라린 여생을보내려든중 설상가상으로 그와같이 초가一간까지 소실이되매 황씨의 애통함은 다시말할수업엇다 이를 가엽게 여긴 동리사람들은 한푼 두푼의 주머니 털털털하야 十七원七十五전을 황씨에게주고 위로함을 마지않엇다한다. 발화의 원인은 온돌화구멍에서 일어낫다한다.

德川에積雪尺餘

【덕천】덕천에는 지난三월三十一일 오전七시 부터 눈이 나리기 시작하야 오후 네시까지 나린 눈이 一척五촌이나 쌓여七十년래로 처음보는 현상을 일우엇다 한다.

新反에堤防工事
五個年繼續事業으로
◇금년도 예산만八천여원
被害土地三百餘町步

【의령】작년의 현안이든 신반제방개축공사는 금년도예산에 통과되어 지난三월二十일부터 만五개년 계속사업으로 공사에착수하엿다는데 금년도예산에 통과된것이 六천八백원 동리구역 부담액이 一천四백원 금년도총공사비반 八천二백원의 다액에 달하며 제방거리 二천五백간 피해토지 三백여정보에 달하다.

이 신반제방공사는 수년전부터 지주와 청부업자 지주와 지주간에 생소에생소를 거듭하야 도저히 지주자신의힘으로는 공사에착수할하이없어 수차도당국에 애소하엿든것인데 금반도예산에 통과되어 제방공사를 하게되엇는데 이와 꼭같은 조건을 가지고잇는 부림면립산(富林面立山) 제방과 유곡면세간(柳谷面世干)제방도 그대로 둔다면 오로를 하천이 되게할련지가잇어 주민들은 이것까지 실현을 보게 하엿으면하고 희망한다한다.

火藥잘못쏘다
鑛夫二名瀕死

【홍성】지난 三월三十一일 경에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洪城郡長谷面芝井里)에 잇는 홍성광산에서 화약을 쏘다가 굴(坑)이 문어지는 바람에 광부二명이 반사의 중상을 당하엿다는바 중상자는 본적을 보령군 청나면(保寧郡靑蘿面)에 둔 이봉주(李鳳柱)와 광산소재지에 잇는 전상협(田相協)이라 한다.

安東實業學院
今秋까지開校準備

【안동】경북 안동(安東)에는 해마다 증가하는 보교졸업아동의 상급학교 미취학으로 말미암아 일반 학부형은 이 중대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수년래에 적지않은 고심을 하여오든바 금번에 안동사회의 유지 김중하(金中夏)씨 권오종(權五鐘) 김두현(金斗顯) 권태성(權泰星)씨가 안동실업학원의 설립기성회를 열고 그 경영방침과 교수과목을 작정하야 오는추기에는 개교하리라는데 그유지방법에 잇어서는 안반교수탑의 의연금과 생도수업료를 합하야 연경비 최저한도로 三천원을 계사하엿으며 교수과목은 중등학교의 일반 교재로써 졸업기한 三년제로 실시할터인데 방금 경북도에 그 인가신청을 제출하고 금추개교되기를 기다리는동으로 학원위치에 대하야는 현재 안동공립학교의 신축교사(新築校舍)에 그장소로 들어가리라 한다.

保險金貪내어
自家에放火
◇보험금 八천원 먹자고
主人取調에結局自白

【사리원】황해도사리원읍 경리(京里) 김모(金某)의집에서는 얼마전에 발화되어 그상점과상품을 전소하엿는데 그후경찰에서는 방화의혐의가 잇다하야 이래 그집주인김모와 점원들을 취조하든중 화재보험금八천원을 탐내어서 방화한것으로 자백하엿다한다. 그와같이 방화한 원인은 모두가 가정이 불화한까닭이엇다는데 지난二일에 一건서류와같이 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 한다.

益新學校音樂會

【중화】평남 중화군 익신(益新)학교에서는 수학여행겸 순회음악회를개최키로 교장 강기순(姜琪淳)씨가 교원 一동과 같이 학생 十三명을인솔하고 평양부로 가서 지난 二十九일오후 八시에 시내의 상화원에서 본보 중화지국 후원하에 음악회를 개최하엿든바 성황을이루엇다 한다.

鴛鴦의짝八千餘件
離婚도亦是六百餘件
三十세로부터 卄五세가 많이
全南一年間의統計

【광주】결혼과 이혼의 통계=전라남도내에서 八년의 一년동안의 결혼건수와 이혼건수를 조사하여보건대 결혼은 八천 五백 八十四건이요 이혼은 五백 六十八건이라고하며 이것을 七년의 비하여보면 전자는 一천 七十건 후자는 一백四十건의 감소가 되엇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과 이혼을 연령별로보면 두가지가 다 二十세로부터 二十五세까지가 제일 만타는바 결혼자는 三천 九十건이며 후자는 一백 五十九건이라고 한다.

저울눈속인
不定事實綻露
다시 달아본결과 알게되어
惡德群山米穀客主

【군산】곡주(穀主)의 우매함을 이용하야 저울눈을 속여먹으려다가 드디어 탄로된 불량상인이 발생하엿다. 충남 보령군청라면(保寧郡靑蘿面) 김도수(金道壽)는 얼마전에 정조八十四석을 운반하여가지고 군산에 잇는 풍년상회(豊年商會)라는 객주를 찾아와서 매석에 五원六十五전으로 가격을 작정하고 부모다시 조선정미소(朝鮮精米所)로 운반하여놓고 저울에달어 본바 정조 八十四석에 대하야 자기가 달아가지고온 것보다 四백八十근이 줄어드는 놀나운사실을 발견하엿다한다.

그러므로 전기곡주는 이것이어찌된셈인지 알수없어 미곡조합(米穀組合)에 의뢰하야가지고 재차 달아본결과 겨우 一백三十四근밖에는 줄어들지 아니하엿다하며 지난三十一일에는 서산군고성면장리(瑞山郡高城面長里) 지학구(池學九)가 정조 一백八十二석을 싣어가지고 부내 오쪽객주(客主)에게 팔고자 찾어왓다가 역시 전기와같은 一반곡주를 속여먹으려는 객주의 부정사실이 적중발생하는것으로보아 군산에잇어서 처음보는 봉사인동시 군산에잇어 미곡

未就學兒童爲해
救濟講習會

【개성】개성제一、二공립보통학교에서는 미취학아동 구제방침으로 작년래 아동을 모집하야 그 성적이 매우 우량하엿다는데 금년도 신학기에도 취학못하는 무산아동에게 초등교육 강습을 하기로 기약하야 강습회를 개최하고 제二기생을 모집한다는데 신입기간은 四월十六일 까지라고 하며 상세사항은 다음과 갈다고 한다.

一、修業年限 二個年(四期分)
二、年齡 滿九歲以上의男子에限함
三、授業料 每月三十錢
四、修了 二個年修了成績優良操行善良者는 公普校에 試驗을受하야 入學의特點이 有함

입학아동 구역은 다음과같다.

開城第一初等敎育講習會區域 北本町 東本町 大和町 西本町 滿月町 高麗町 [南山町 池町]의一部

開城第二初等敎育講習會區域 東本町 元町 京町 高町 [高麗町 池町]의一部

學級增設期成會

【진지】[illegible]군 지운면 진지([illegible])공보교에는 해마다 입학하기가되면 입학지원자가 격증하야 입학지못한 학령아동 수백명의 아동이 배울곳이없어 문맹으로 지나게됨을 유감으로 생각한 면내유지수백여명이 지난二일 동교강당에 회합하야 그 대책을 강구한결과 학급을 증설하기로 一치가결되어 기성회를조직하고 위원을 선정하엿는데 그씨명은 다음과갈다한다.

會長金昌鳳 副會長[illegible] 其他委員七十四人

十五歲處女시켜
卄回나放火
음흉한무당의 소위로판명
돈도못먹고警察身勢

【조치원】지난달 二十九일 부터 조치원경찰서에서 방화죄로취조를 받고 잇는 十五세의 처녀가 잇다 그의 내막을 알아보건대 주소부정한 무당이옥경(李玉敬)이 조치원 새탑(燕棲院前)권순칠(權順七)의 집에유숙하면서 권순칠의장녀 「도랑이」(도)이를 시켜 이웃집에 매일 드나들며 이집 저집에 방화케하고 자기는 돌아다니며 이동리는 독갑이가 붙엇으니 돈을모아 굿이나벌시오 하라고하엿다한다 동리 사람들은 밤낮으로 자위단을 조직하여 순회하다가 二十九일 오전에 박정숙(朴正淑)의집 처마에 전기「도랑이」가 방화하는것을 발견하고 즉시붙들고 도망가는「도랑이」를 붙잡고 이옥경이도 붙잡어 경찰서에 고발을하야 전기와같이취조중이라는데 방화회수는二十여회가량이라고 한다.

私立信興校
兩敎員表彰式

【강동】평남 강동군원탄면 표대리(元灘面表岱里) 사립신흥(信興)학교는 三十여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로 교장김승진(金昇鎭)씨의 노력과 교원정석범(丁錫範)김리후(金麗厚) 양교원이 十수년이라는 긴세월을 근속하며 충실히 교편을잡은 결과 현재 一백二十여명의 아동을 교육하는바 장래많은 희망을가지고 발전하는중으로 지난二일은 전기 정(丁) 김(金) 양교원의 十수년기념축하회로 일반학부형과 지방유지 수백여명이 동교에 회집하야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엿다 한다.

(사진은우로부터정김양교원)

奉天在留同胞들이
婦人會를組織
五十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文化向上의基本團體

【봉천】봉천에 재류하는 조선부인 유지들은 봉천에서 반만에 가까운 조선 여성을 위하야 아직도 여성(女性)단체가 없음을 유감으로 여기든바 지난 一일오후 七시에 봉천부인 재봉학교(奉天婦人裁縫學校) 강당에서 五十여명이 모여 황기성(黃基聖)여사의 사회로 동 총회를 개최 하엿다는데 이제 경과상황 보고와 강령선언(綱領宣言) 규측통과 임원선정들을 진행하야 만장一치로 가결하고 동 十시에 폐회하엿다 한다. 강령과 임원은 아래와갈다.

▲綱領

一、朝鮮婦人의 人格向上과 社會的任務를 다하기 爲하야 團體的訓練에 努力함
一、相扶相助의 精神下에 互相親睦을 圖함
一、勤儉貯蓄하야 經濟的 地位의 向上을 努力함

▲任員

會長李順貞▲副會長鄭錫光▲總務朴貞▲庶務部長沈壽星▲財務部長張敬誠▲敎養部長張淑卿▲社交部長劉基永▲職業部長金貞淑▲親睦部長李錦玉

咸興春期淸潔日割

▲四月九日 第二公普校學區▲十日 本町健康相談所▲十一日 咸山幼稚園▲十二日東本願寺▲十三日 興福寺▲十四日 東雲町養德園

會合

◎昌城友利組合總會 三月二十九日 昌城幼稚園에서 開催
◎昌城甲子基業組合 定期總會 三月三十日 同組合事務室에서 開催
◎博川郡嘉東面獸山學院卒業式去二十八日本會館에서擧行

消息

◎李吉燮氏(國部)開業人事次去三日本報端川支局來訪
◎黑瀨春一氏(鳥山公普訓導)入營人事次本報鳥山支局來訪
◎山田守房(前高敞警察署長)轉勤人事次 本報高敞支局來訪
◎李璋浩氏(森林主事)[illegible]郡榮轉

人事次 本報高靈支局 來訪
◎金敎憲氏(高靈郡農林主事)新任人事次同上
◎高橋正明氏(長湍公普校長)新任人事次 本報長湍支局 來訪
◎金炳龍氏(載寧公普訓導)新任人事次同上
◎桑相源氏(馬山普校訓導) 昌原郡 熊東公普校 轉任人事次 本報馬山支局來訪
◎朱正玉氏(高靈公普校訓導)新任人事次 本報高靈支局 來訪

本報讀者 慰安巡廻野談大會
演士 尹白南氏

四月七日(土)鐵原 四月九日(月)淮陽 四月十日(火)元山 四月十一日(水)川內里
四月十三日(金)高原 四月十四日(土)永興 四月十六日(月)鎭興 四月十七日(火)咸興
四月十八日(水)興南 四月二十日(金)三湖 四月廿一日(土)洪原 四月廿三日(月)城津
四月廿四日(火)漁朱 四月廿五日(水)漁大津 四月廿七日(金)南陽 四月廿八日(土)間島

赤道 (88)
玄憑虛 作 / 李靑田 畵

어여쁜희생 【一】

은주는 거울을 보앗다. 거울은 너무 오래간만에 그의 얼굴을 비최기를 놀래기나한듯이 울렁울렁 떨리는것 같앗다. 눈물 어린 시선이 핑핑 내어둘리는 탓이리라.

그는 거울을 보고 또 보앗다. 아모리보아도 제얼굴이 몇이 설엇다. 아리아리 터지것 같은 빰은 한껍을 잃고 새들새들 헐어진듯 하엿다. 몽신분사하든 터도 까리러지다 양양이 배언저리에도 오러가든것. 어찌면 눈두방이 이러케 부어올랏을가. 눈엔 무슨 티나 들어간모양으로 개이고 어루하다.

그는 화장제구를 잇는대로 일본경대우에 늘어놓앗다. 잇는대로 늘어놓는대야 그라니 그릴을 물분, 분첩, 곤지등 너덧가지 밧에 되지 않앗다. 구미는 여학생 갈으면 오주 갈은 처지에 이런제구가 수십종이낭이라면, 오주에게는 이런것이나마 잇는것이 오하려 빈정이엇다. 이 빈약한 화장제구일망정 그는 별로 손에 대여 본적이 드물엇다. 참잔치 못하고 꿈살궂지못한 그는 제 몸치장에도 등한하엿든것이다. 분을 내기엔 키만 어린듯하엿지, 말은 아직어리엇든것이다.

그는 분첩으로 부은 눈물 자국을 지엇다. 그러나 전경을베일통으면, 세것이 다시금 분가루를 제치고 심술개천을 그리며 구을려 떨어젓다.

그는 분첩을 놓고, 그대로 쓰러저 울엇다. 전같으면 그는 잉잉 소리를 내지 빼빼울엇을것이다. 그는 숨을 죽이고 소리없이 운다. 종종 종종하게 누가 들을가 그리는처럼 그는 이 한답지간에 정탑 로성하고말앗다. 어리광피우든처녀적이로부터 대번에 늙을 자진 계집이되고말앗다.

그는 몸을 금이야 옥이야 길러 낫다. 옷이며 귀염으로 기러낫다 바람도 모르고 치위도 모르고 무럭무럭 봄바람에 무쑥과 같이 자라낫다. 이몸의 첫야침은 그에게 미소만 던지는듯 하엿다.

청천의 벽력! 그의 몸에 꽃에도 생각지 못한 피변이 일어낫다 따스한 오월에 쏟아진 된서리! 그는 아무런 저항력도 없엇다. 저항력도 없엇다. 온실에서 피이고 그대로 이울엇다.

생각하면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조차 못할 일이엇다. 그는 이것이 한바탕 악몽으로 살아지기를 바랏다. 그러나 흐려진 머리카락 수세미가 된옷은 무서운 사실을 뚜렷이 말하고 잇지 않으냐.

그는 그일 생긴 며칠밤은 뜬눈으로 새웟다. 잠안오는 밤! 나생처음으로 불면증이라는것을 맛보앗다. 갖은 생각이 몽칫몽칫 피어오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랏다. 멍하게 얼이 빠진 것 같으면서도 원통은 찢어지는듯이 쑤시고 아팟다.

얼마만에야 첫째로 떠오른 생각은 자기가 방금 나가서는 안될다는 생각이엇다. 사람 대하기가 가장 싫엇다. 누은 그자리에 꼼작도 않고 그대로 살아갓으면 싶엇다. 그는 햇빛도 겁이 낫다. 그 밝은 광선이 한번 제몸에 닿기만하면 피 묻은 상처가 그대로환하게 들어날것만 같앗다. 누가 밖에서 제 행동을 엿보는듯하야 몇번을 미다지를 다시닫앗다. 조금만 문밖이 버적하여도 그는 깜짝 놀라치곤 하엿든것이다. 나중엔 덧문까지 닫아걸엇다.

◇……各私立學校授業式 敎信學校 貞明學校 大正學校 荊川 學友學校 安城 安靑年學院

御園石鹼의 거품은 크림과 같이 진하고 濃아서 肌膚를 덥고 薔薇의꽃을 聯想하는芳香은 마음에 저속까지爽快하게…………그러고 健康美를 讚揚하시라

御園石鹼 (미소노비누)

全國有名化粧品店 百貨店에잇슴

御園石鹼

伊東胡蝶園

大量의玉蜀黍를 이現代的大工場에서 要求합니다

今番에는有利한玉蜀黍(강냉이)를栽培하도록하십시요

玉蜀黍栽培法에關하야 詳細한것은弊社로問議하여주시오

平壤府黃金町(東拓ビル)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
平壤營業所 (電話一四七三番)

●조선의자랑 우리의옷감은 태극성광목!

新 淋 藥 病

陸軍藥局方收載

ツヨール (쓰요-루)

淋菌을殺滅하고尿를淸澄케함、持續服用할지라도胃腸障害又는腎臟刺戟을不起함

(適應症) 急性。慢性淋病・膀胱炎・尿道炎・

製造元 津才製藥合資會社
一手販賣 五處洋行

鳥捕網

재미잇시세가절심합니다 두시사용할수잇습니다 참새그물

吉備商會 京城府永樂町二丁目

本店 京城府南大門通

株式會社 漢城銀行

家庭

손곱아기다리든洋裁縫講習 今日午後一時부터開講

가정 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야

申請은正午까지接受

학생들의 가정부인 여러분 本… 육자들의 협력한 기대밑에 용에 청이조선부 불리게 되는 본사하에 보주최의 제六회 양재봉강습회는 오늘오후 한시부터 본사 三층강당에서 열리게되엿습니다. … 이번강 재봉강습에 대한 여러분의 문의하신것도 … 가정 생활과 사회생활에 잇어서 절대로 필요한 의복에 대한 최신지식을 배우려고 모여시는 많은 부인과 아무조록 손쉽고 간단하게 양재단법(洋裁斷法)의 오렴과 실제를 강습하실 강사 계씨는 … 한자리에 모이시게되엿습니다. 오늘의 첫강습을 … [illegible]

(이번강습회의 강사 김영애, 임정혜 두분의 저정한 글도 아울러 읽어주시면 의양재봉이얼마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나 필요한가를 아시겟읍니다.)

[illegible]

講習을시작하며 그리의음무엇

洋裁縫 (上)

金永愛

[illegible]

작금은 양장(洋裝)전정시대

[illegible]

博士室

問 세메느의 설탕과 어찌하여 … (春川本町 金七鹿)

答 [illegible] (W)

우리는 양복이 경제하야 보기좋고 … 이양재(洋裁)에 대한 지식 [illegible]

아동복과 부인복을 손수만드는기쁨

이번에배워두면 영구하게용용

(上) 任貞嫌

버들가지에 움이 오르고꽃봉오리는 점점 커가는 이때 우리는 새로운 봄빛에 마추어서 새로 장만해야겟지요. … [illegible]

◇…이번에옷는 사진아홉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습회에서배울아동복, 부인복, 청의등등의 표본…◇

クラブ美身クリーム

クラブ美身クリーム
クラブ淡白(バニシング)クリーム
クラブコールドクリーム

愛用者優待 大懸賞當籤發表

御應募總數 五十一萬八千九百十三通
内 正解 四十九萬二千五百二十七通
御入賞總數 六萬一千五百五十名樣

特等

特製 重ねタンス 又は 洋服タンス
金側 腕時計 紳士用又は淑女用
高級 ラヂオ・セット
特製 ポータブル蓄音器

希望하시는것 一個씩을贈呈 五十名樣

大阪市西淀川區姬島町 大谷八重
大阪市港區八幡屋町 竹内よし
京都府何鹿郡以久田村 大槻好江
東京市豐島區西巣鴨町 笠原以志子
東京市澁谷區青葉町 鶴瀨規代子
郡山市郡山郵便局 酒井ハルエ
[illegible] 石北たれ
桐生市共立會社內 福田辰雄
岩手縣岩手郡御所村 高藤富代
秋田縣北秋田郡下大野村 高橋操
山形市上町 中村智惠子
埼玉縣北埼玉郡大桑村 福田ふく
茨城縣東茨城郡下中妻村 大槻まち子
横須賀市公郷町 竹村キミエ
千葉縣千葉郡[illegible]村 吉田智子
山梨縣南都留郡[illegible]村 藤田茂子
長野市花咲町 小林富代子
靜岡縣田方郡戸田村 堤喜久代
岐阜縣揖斐郡清水村 小竹やゑ
松阪市新町 竹岡勇子
[illegible] 小幡きぬ
[illegible] 近藤ゆき
富山縣東礪波郡出町 河口キクエ
福井縣坂井郡[illegible]村 加藤トメ
愛知縣愛知郡鳴海町 阪野ぎん
鳥取縣東伯郡倉吉町 谷口花子
松江市伊勢宮町 小栗昇市
[illegible] 井上商店 シズ子
廣島市堀川町 柴田茂
岡山縣[illegible]村 和氣村きし
下關市新地町 中山[illegible]
高松市田町 鹽田俊子
高知縣安藝郡安田町 黒岩鶴子
[illegible] 中村八重子
德島市北佐古町 [illegible]
福岡縣企救郡[illegible]村 藤井イシ子
八幡市[illegible]一丁目 平[illegible]
大分縣大野郡[illegible]村 椎原辰馬
熊本縣阿蘇郡宮地町 家入トキエ
佐賀縣[illegible]町 神近和江
長崎市伊良林町 中野ヒサ子
[illegible] 幸喜久子
[illegible] 大澤キヨ子
[illegible] 濱田年子
[illegible] 村[illegible]
[illegible] 市原秀子
[illegible] 安藤よし子
[illegible] 永島厚子
[illegible] 道上アサ

感謝

昨秋發表件、施行된化粧法中의クラブ○○クリーム、クラブ淡白クリーム、クラブコ○○ドクリーム의三種의大懸賞은滿天下愛用者各位의白熱的歡迎을받어應募總數가實로五十一萬八千九百十三通、內에正解가四十九萬二千五百二十七通이라는壓倒的盛況을呈하엿습니다。玆에各新聞社、通信社及警察署代表立會下에嚴正施行한抽籤의結果를發表하야、平素의愛顧를感謝하는同時에、將來더한층クラブ化粧品을愛用推奬하여주시기를 懇願하는바이올시다。(紙面의形便上當籤者各位의芳名을省略하엿사오니諒察하시옵기바라나이다。)

一等

流行新柄 社交お召 一反宛 五百名樣

[illegible]

二等

特製 プラトン萬年筆 一本宛 五百名樣

[illegible]

三等

クラブ化粧品詰合函 一函宛 五百名樣

[illegible]

四等

クラブ石鹼 旅行型
一個宛 二萬名樣

五等

クラブ歯磨 チューブ入 又は 旅行型
クラブ洗粉 布袋入
一個宛 四萬名樣

●四等及五等의當籤者는直接賞品의送附로써發表에代함니다
●賞品은總히發表後一個月以內에發送함니다

クラブ化粧品
カテイ化粧品
クラブ歯磨
總本店 中山太陽堂

クラブコールドクリーム・クラブ淡白(バニシング)クリーム